

기아 창립 80주년...과거 정리 ‘사사’·미래 콘셉트카 공개

80주년 기념행사...자전거서 전기차까지 80년 압축 전시
오토랜드 광주공장 등 국내 생산기지 역할 재조명 큰 호응

창립 80주년을 맞은 기아가 그동안의 성장 궤적을 되돌아보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공유해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기아는 특히 국내 대표 생산 거점인 기아 오토랜드광주를 비롯한 전국 사업장의 의미를 조명하고, 지역 산업과의 미래 발전 연관성을 집중 부각해 지역 산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7일 기아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80년 사사(社史) ‘기아 80년’과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처음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기아 전·현직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아 80년’은 1944년 경성정공 창립 이후 자전거, 삼륜차, 승용차, 전기차,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에 이르기까지 기아의 성장을 집대성한 첫 공식 사사다.
김철호 창업자의 산업보국 정신과 정몽구 명예회장의 품질 경영, 정의선 회장의 디자인 혁신과 ‘기아 대변혁’까지 80년의 변화 과정을 ‘도전과 분발’이라는 핵심어로 정리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를 포함한 국내 생산 거점의 주요 모델 개발 과정과 브랜드 성장 과정도 담겼다.
이날 공개된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결합해 이동의 개념을 ‘주행 중심’에서 ‘휴식과 소통’으로 확장한 모델이다. AR HUD(AR Head-Up Display) 기반 ‘스피드스터’, ‘드리머’, ‘게이머’ 등 세가지 디지털 주행 모드를 통해 몰입형 주행 경험을 구현했다.
행사장 1층에는 창립 80주년 기념 전시 ‘움직임



홍철민(왼쪽부터) 기아 매니저, 김가민 기아 엔지니어,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카림 하비브 기아 글로벌 디자인 담당 부사장, 압둘아지즈 모하메드 알 아티아 기아 카타르 대리점 회장이 기아 창립 80주년을 맞아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선보인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 유산’도 공개됐다. 1952년 국산 최초 자전거 ‘3000리호’부터 광주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 등 기아 대표 장수 차량이 함께 전시됐다. 전시는 2029

년까지 운영되며 일반 고객 관람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품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며 품질 경영을

강조했던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리더십을 조명하는 ‘사람과 유산’ 전시도 마련됐다. 이 공간은 기아의 80년을 함께한 고객들과 현대차그룹이 축적해온 품질·세계 경영의 역사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아는 이와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겸 스토리텔러로 활동하는 오요우 작가와 협업·제작한 일러스트레이션과 기아 80년 역사를 담은 온라인 콘텐츠 ‘무브먼트 아카이브’를 공개하고 기아의 ‘유산’을 소개했다.
정의선 회장은 “기아의 80년은 한편의 서사처럼 위대한 여정이었다”며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함께 온 임직원과 협력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 80년 사사 편찬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창업 이래 이어 온 ‘분발의 정신’을 되새길 것”이라며 “정신적 자산을 포함한 기아의 유산을 잘 간직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수능 끝난 학생 210명 대상 ‘1사1교 금융교육’

불법 금융 예방 수칙 등 안내

광주은행은 “지난달 28일 광주시 대인동 본점에서 광주수피아여고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능을 마치고 성인이 되는 예비 금융 소비자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재무관리, 각종 불법 금융 사례 및 예방수칙 등을 안내해 금융 감각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1사1교 금융교육은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광주은행의 대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쉽게 금융을 알려주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광주은행은 결연을 맺은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경제관 형성과 금융문화 확산을 돕는다. 올해도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 4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참여해, 가장 최근에 대학에 진학한 선배로서 입학 후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비 사회초



년생 꿀팁’〈사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준비했다. 오픈채팅방을 통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격증 준비, 어학연수, 대회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호응을 얻었다.
신종식 광주은행 브랜드전략부장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와 협력해 지속적인 금융교육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

8월 말 기준 100만4000여명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 여성이 6만1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칭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8만4000명을 넘겼고, 올해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처음 나오기도 했다.
올해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이고,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이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쿠팡 “경찰조사서 2차 피해의심 없어”

‘노출’ 대신 ‘정보유출’로 공지

쿠팡이 7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
쿠팡은 이날 공지문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번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 고객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이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해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업비트 해킹에...가상자산업권에도 ‘무과실 배상’ 추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업비트에서 4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서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해킹이나 전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해 제정돼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법)에도 해킹 또는 전산 사고 관련 조항은 없어 최근 업비트 사고 역시 중징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안 침해 이외에 전산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파스)에서는 총 20건의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 120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9	24	27	35	36	37
등위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414,555,718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3,326,506
3	5개 숫자일치					1,348,819
4	4개 숫자일치					50,000
5	3개 숫자일치					5,000

GGM 윤몽현 대표이사 재선임에 주주단-노조 갈등 심화

“괄목할 성과” vs “미래 전략 부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 재선임을 둘러싸고 주주단과 노동조합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캐스퍼의 국내외 판매 호조로 2교대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출범 취지였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가 오히려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에도 장기적인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GM 주주단은 7일 성명을 내고 윤몽현 GGM 대표이사 재선임에 대해 “지난 2년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캐스퍼 전기차 양산 성공, 누적 생산 20만대 돌파, 수출 성과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해 재선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주단은 또 “GGM이 설립 5년 차를 맞아 생산 안정화와 지역경제 기여가 본격화하는 중요한 시

점에 있다”며 “노조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제안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지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 GGM의 위기는 노조의 요구가 아니라 투자와 경영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주단과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이번 주주단의 성명 내용에 대해 “갈등의 원인을 일부 인원과 외부 단체의 탓으로 돌리며 구조적 문제와 경영 책임을 외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주간 2교대 전환 지연에 따른 생산 물량 적체, 캐스퍼 외 추가 차종 투입 계획 부재, 노사 교섭 지연·노조 배제, 비민주적 조직 운영 등이 현재 GGM이 직면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주간 2교대 즉시 시행과 캐스퍼 외 추가 차종 투입 확약, 노조 탄압 해결과 노동 삼권 보장 등을 요구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현

장을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GGM의 지속가능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와 캐스퍼 일렉트릭은 판매 호조로 생산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2교대 전환을 위한 추가 인력 충원과 물량 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GGM 출범 당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누적 생산 목표 35만대 생산 전까지 임금과 근로 여건 등을 노사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노조 결성에 이어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고객사인 현대차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회사를 사랑하지만 노동권을 무시한 상생은 존재할 수 없다”며 “광주시와 현대차는 갈등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2교대 전환과 추가 차종 배정 등 실질적인 미래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전, 청렴윤리위원회

실적 점검·개선방향 논의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5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25년 제2차 청렴윤리위원회’를 열고 청렴윤리경영 추진 실적과 내부통제 운영 결과를 종합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한전은 청렴윤리경영 강화 및 내부통제체계 고도화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렴윤리위원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내부 경영진 6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윤리준법경영과 내부통제 체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간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성과를 점검·평가한다. 또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한전은 지난 5일 기존 윤리준법위원회를 확대 개편했고, 외부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중심에서 현장 실행 중심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 안정적 전력공급, 전력망 확충 등 국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